# 완도 '억대농' 1654가구

## 농어가 열집 중 한집…타지역 보다 20배

완도군이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1억원이상 소득가구를 조사한 결과 총 농어가 1만7296가구중 9.5%에 해당하는 1654가구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5배에서 20배가량의 높은 수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직종별로는 어가가 1571가구(어가별 평균 2억3000만원·총 3600억원)로 전체 95%를 차지했으며, 농가는 55가구로 3.3%, 겸업 28가구 1.7%로 수산업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억원이상 고소득 가구중 5억원이상은 80가구, 10억원이상은 30가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읍면별로는 노화읍이 566가구로 가장 많았다. 가장 부자마을은 전복 등 수산양식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노화읍 미라마을이 총 124가구 중 84가구가 1억원이상 소득을 올렸다.

품목별로는 수산물인 경우 전복, 광어 순이고, 농업은 한우가 높게 나타났다. 전복의 경우 1년 매출액은 3500억원 정도이고 치패 등 관련 사업을 포함하면 연 5000억원 규모의 완도 주력산업으로 발전했다.

이처럼 소득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수산산업의 활로개척과 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로 분석된다.

완도군은 해양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전복연구소, 해조류연구소, 해양바이오산업센터 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전복특구 및 해조류 건강바이오특구 지정 ▲전복주식회사 설립 ▲한국수산벤처대학운영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산행정을 펼쳐왔다.

또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화작목과 친환경농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온 것이 농어가 소득 증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완도군은 이번 조사결과를 근거로 품목별 고소득 농어업 표준 모델을 마련하고 고소득 농어가 육성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고소득 농어가의 성공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더 많은 고소득 농어가가 육성될 수 있도록 농어가별 맞춤형 지원 및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목포 북항 해경·어업지도선 부두공사 하도급업체 부도

# 장비·자재 납품업체 '발동동'

## 어음 백지화·미납 피해 20억원

목포 북항 해경 및 어업지도선 부두축조공사 하도급업체 부도 여파로 지역 장비업체와 자재 납품업자 등 영세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 공사는 삼학도 복원화사업으로 해경부두 이전과 서해어업지도사업소 전용부두를 건설해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성있는 항만운영을 위해 지난 2006년 12월에 착공해 오는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동양건설산업 외 2개사가 턴키사업으로 ▲안벽 554m ▲호안566m ▲선양장 50m ▲부대공 1식 등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비 289억1300만원을 투입해 현재 공정률 90%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0%의 공정만을 남겨둔 지난 7일 하도급업체인 인천 소재의 재현토건이 부도 처리되면서 대부분의 영세 납품업체들이 받은 어음이 백지화되거나 현금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업자들이 받은 어음은 12억원이며 미납된 납품대금은 8억원으로 총 20억원에 이른다.

원청업체인 동양건설사 측은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부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책을 찾아보겠지만 이전에 지급된 어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비춰볼 때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부도 처리된 재현토건의 또 다른 채권단인 국민은행 등에서 동양건설 본사에 21억원을 압류해 금융권부터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볼 때 이 지역 납품업자들의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설업 관계자들은 "이토록 하도급업체들이 부도가 자주 발생한 것은 원도급자가 저단가로 공사를 수주하면서 하도급 비율도 그만큼 저단가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첫 원인"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다도해공원 불법행위 '사전예고' 단속

국립공원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공원내 자연자원 훼손과 오물투기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최근 7년간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금지행위 단속은 ▲봄철(3~5월) 42건 ▲여름철(6~8월) 35건 ▲가을철(9~11월) 17건 ▲겨울철(12~2월) 1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중 봄철이 가장 높은 40%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발생하는 무질서행위는 춘란·하수오 등 식물채취, 출입금지, 오물투기, 몽돌채취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습 불법행위 발생 지역으로는 신안군 흑산도와 홍도, 진도군 조도, 관매도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부사무소는 섬지역 해안가 일대에 빈번히 발생했던 야생식물 채취와 몽돌 밀반출 등과 같은 자연자원 훼손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는 한편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4월에는 공원내 흡연행위와 취사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황정걸 서부사무소장은 "국립공원 지역에서 불법 식물채취 등과 자연자원 훼손행위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3월 재개

'목포의 명물'로 자리 잡은 '춤추는 바다분수' 공연이 3월부터 재개된다.

목포시는 당초 오는 4월부터 바다분수 공연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기상상태를 고려해 한 달 빨리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11월까지 9개월간 평일에는 저녁 3회, 주말에는 1회 추가해 각각 운영한다.

'춤추는 바다분수'는 지난해 8월 목포 해양문화축제 때 공연을 시작해 목포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으며 104일 304회 공연을 통해 50만명이 관람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함께 레이저 공연을 병행하고 기념일, 프러포즈, 생일 등의 축하 사연도 소개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 목포대, 中企 인력양성 협약

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와 (사)중소기업이업종 광주·전남 연합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지난 24일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협약 내용은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정책연구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수행 및 연구개발 ▲인턴십·현장실습 기회제공을 통한 우수인재 채용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등 우대 지원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운영 등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전 북

# 전주 시내버스 노선 부분개편

## 市, 오늘부터 지간선제 시행

전주시는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에 따라 다음달 2일 개학전 시내버스 운행률을 높이기 위해 28일부터 지간선제 시행 및 노선개편을 부분적으로 시행한다.

지간선제 시행 방면은 완주군 이서방면(14대) 과 삼례방면(코아루, 와리, 석전리 방면 9대)에서 이뤄지며, 부분적인 노선개편은 기존 684번(사단앞~금구), 644번(사단 앞~원평, 금구)의 사단앞 기점이 하나로 클럽으로 바뀌어 운행하게 된다.

방면별 환승지는 이서방면은 전주대, 삼례방면은 삼례터미널에서 환승이 이뤄지게 되며 이서방면은 5대, 삼례방면은 4대가 마을버스 개념으로 운행을 책임지게 된다.

지간선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각 마을 운행횟수보다 증가하게 되며, 첫차와 막차시간 운행이 어려운 지역도 운행을 하게 돼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각 환승지에서 여러 방면의 노선을 선택해 갈아 탈수 있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존 이서방면과 삼례방면을 운행하던 23대 차량에서 9대로만 운행이 가능하게 돼 14대의 잉여차량이 발생하는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파업으로 인해 부족한 버스증차 효과도 노릴 수 있게 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환승이 발생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기존 운행횟수보다 증가하게 되고, 14대의 잉여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파업으로 부족한 노선에 투입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돌고래 폐사 원인은 질식"

## 전주환경청 "새만금 호수 결빙으로 호흡 못해"

새만금에서 떼죽음한 상괭이(쇠돌고래)의 집단폐사〈광주일보 2월 10일 11면〉 원인이 결빙에 따른 질식사로 밝혀졌다.

전주지방환경청 이원택 청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대 수의학과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공동 부검결과 상괭이 집단 폐사의 원인은 호수가 얼면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바람에 상괭이들이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호수에서는 2월 초부터 최근까지 상괭이 223마리가 숨진 채 물위에 떠올라 농어촌공사와 환경단체간에 폐사원인을 두고 쟁점이 됐다.

전주환경청은 "상괭이는 정상적으로 1분에 3회 가량의 호흡을 해야 하는데 40년 만의 한파로 올해 1월 새만금호의 3분의 2가량이 동시다발적으로 결빙돼 호흡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됐고 이때 상괭이들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아가미로 호흡하는 다른 어류와 달리 폐로 숨 쉬는 상괭이들만 집단 폐사했다"면서 "일부 상괭이는 이미 질식사해 바닷속에 있다가 부패하면서 물 위로 떠올라 그물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부검을 맡은 전북대 수의학과 임채웅 교수도 "상괭이의 건강상태는 양호했으며 조직검사에서 특이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세균검사도 음성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중독이나 질병이 아닌 새만금호의 결빙에 의한 질식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당시 새만금 호수가 결빙됐으나 부분적으로 얼음이 갈라진 곳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질식사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주환경청은 "그동안 상괭이의 집단 폐사 원인을 놓고 결빙으로 얼어 죽었거나 질식사했거나 그물에 걸려 죽었을 것이라 등 다양한 추측이 있었지만 이번 부검을 통해 폐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면서 "새만금지구의 내측 바다에 멸종위기종 등 보호해야 할 해양생물은 없는지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한옥마을내 패스트푸드 입점 금지

## 전주시 전통 이미지 부합 시설만 부분 허용

앞으로 전주 한옥마을에 피자와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점과 대형 상업시설 입점이 금지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한옥마을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큰 틀에서 한옥마을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업시설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을 계획이다.

한옥마을에 상업시설이 마구잡이로 들어서면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국내 유일의 한옥마을'이라는 장점이 희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피자와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점은 입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막과 같이 전통 이미지에 맞는 상업시설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660㎡인 건물별 대지의 최대 면적도 일정 수준 이하로 줄여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최락기 한스타일과장은 "한옥마을 정체성을 살리면서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기 위한 차원"이라며 "상반기에 최종안을 만든 뒤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k0765@

**봄…만개하다** 남원시 금지면 입암리 문성호(53)씨 하우스 내에 복숭아꽃이 만개해 장관이다. 하우스 복숭아는 1월 중순 가온(加溫)을 시작해 노지 재배보다 40여일 빠른 지난 23일 꽃이 만개해 5월 하순께 수확하게 된다. /연합뉴스

## 단신

### 익산시 '익산 자랑거리 64선' 발간

익산시는 '자랑스러운 익산만들기 운동' 일환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8일 '익산자랑거리 64선'을 펴냈다.

이번 책자는 동양 최대의 사찰인 미륵사지와 가요 '고향역' 무대인 익산역, 황진이와 선비 소세양 등 지난해 8월 시민공모를 통해 수집한 지역의 문화, 관광, 인물, 산업 등 다채로운 300여건의 자랑거리 가운데 최종 64건을 선정해 엮은 것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정읍시 매주 '터놓고 얘기합시다의 날' 운영

정읍시는 간부 공무원과 6급 이하 직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소통과 창의행정' 구현에 나섰다.

시는 매주 금요일을 '터놓고 얘기합시다의 날'로 운영, 종전 관행이나 불필요한 격식에 의존했던 간부와 직원과의 대화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직원들의 이슈사항을 여과없이 수렴해 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화를 희망하는 직원의 신청을 받아 희망자 우선순으로를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은 해당부서에 통보해 더 나은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김제시 3·1절 '내 집부터! 국기게양 운동'

김제시는 제92년 3·1절을 맞아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를 '태극기 달기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 집부터! 국기게양 운동'을 본격 추진했다.

시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주요 시가지변 12개 노선에 가로기를 일제히 게양할 예정이다.

읍면동 역시 19개 시범 가로변과 23개 시범마을, 아파트를 선정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구입, 게양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계도를 실시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 한국농어촌公 새만금사업단 헌혈 행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조인현)은 지난 24일 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혈 행사를 가졌다.

이날 헌혈행사를 통해 모아진 혈액은 전북도 혈액원을 통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인현 새만금 사업단장은 "헌혈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고 도움주는 사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